

Contents

- | | |
|------------------------------------------------------------------------------------------------------------------------------------------------------------------------------------------------------------------------------|-------------------------------------------------------------------------------------------------------------------------------------------------------------------------------------------------------------------------------------------|
| <p>01 권두언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p> <p>03 이달의 이슈
①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전략
②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③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p> <p>09 자치단체 탐방 - 충남 서산시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p> | <p>11 자치단체 우수사례 - 전라남도 순천시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비즈니스</p> <p>13 도시통계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추진실적과 통계</p> <p>16 지방자치단체 동향(11월)</p> <p>17 연구원동정-12월 연구원 소식</p> <p>19 알림마당 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기관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p> |
|------------------------------------------------------------------------------------------------------------------------------------------------------------------------------------------------------------------------------|-------------------------------------------------------------------------------------------------------------------------------------------------------------------------------------------------------------------------------------------|

KRILA _ 2011

2011년 12월호

제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29호
발행인 한표환
편집인 뉴스레터 위원회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락처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디자인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e-mail :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에서 Newsletter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두언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읍면동 등의 지역사회(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량과 지역 내의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즈니스 원리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커뮤니티재생을 위하여 1975-1976년 ‘단기고용창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발한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회기금 등이 공동으로 출자·관리하면서 지역주민을 고용한다. 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재투자하며, 사업 참여자 개개인에게는 분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대도시 중심부에 생겨나는 일본형 도시내부(inner-city) 문제가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됐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초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출범시킨 영국은 현재 시장규모가 60조원대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초에 영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가 2008년 2400억 엔(약 3조7000억원), 2011년 2조200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것이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읍면동 청사 내부에서 취미나 레크레이션 등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가 서서히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공공성을 가지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다른 마을사업의 재원조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을사업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향후 주민자치사업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목표를 '비즈니스'가 아닌 '커뮤니티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사적 영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관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시민단체-중간협력지원조직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이달의 이슈 _ ①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전략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촌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정체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식량자급률도 하락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공동체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농업은 농가의 고용이나 소득 확보를 비롯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국토·환경·생태를 보전하는 등 국민에게 다원적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수행하는 농업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등장배경

CB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과제에 따라 CB의 출현배경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일련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간 격차확대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 등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CB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CB와 관련한 사업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행정안전부의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지식경제부의 'CB 시범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 '마을단위농업공동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등이며, 정책이 지나치게 선행하는 추세다.

아직 도입초기에 있는 CB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농촌형 CB의 세가지 기능

농촌형 CB란 농촌지역의 마을을 단위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체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을'이다. 마을이란 자연발생적인 지역사회로서 가구와 가구가 지연적·혈연적으로 연결되어 각종 집단이나 사회관계를 형성해 온 사회생활의 기초단위이다. 마을은 생활과 생산을 공유하는 독특한 기능을 가진다.

우선 마을은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마을은 전통적으로 도로나 하천 등 사회기반, 사당이나 자연자원, 종교문화자원,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 등을 유지 관리한다. 또한 마을은 생산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농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조수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통하여 개별적인 생산활동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한다. 그리고 마을은 생활면에서 상호부조기능을 한다. 관혼상제를 비롯하여, 축제나 전통행사, 재해시의 부조 등과 같은 공동체적 활동을 통하여 시장이나 도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연대감이나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며, 이것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풍요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이 마을로서 기능유지가 불가능한 한계마을이 확대되는 것이 현대사회이다. 최근 마을이 붕괴하는 최대 원인은 과소화와 고령화이고, 여기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 글로벌화에 의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등이다.

농촌형 CB는 마을을 단위로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되, 생산한 것을 가공하거나 특산품을 개발하여 직접 판매를 하고, 또한 관광이나 교류를 통하여 지역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즉 농업생산이라는 1차산업에서 출발하여 가공 등의 2차산업, 그리고 직거래나 관광 등의 3차산업까지를 특정 지역에서 담당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

여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동체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농촌형 CB는 세 가지 기능을 상징할 수 있다. 우선 마을이 가지는 전통적인 자연이나 혈연 사회에 기초한 ‘공동체적 기능’을 비롯하여, 일자리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지역경영적 기능’, 그리고 고령자와 여성, 다문화가정 등 혼주사회의 농촌사회에서 수요가 확대되는 복지나 사회적 약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지역공익적 기능’ 등이다.

농촌형 CB의 성공조건

한·EU FTA에 이어서 한·미 FTA 등이 발효되어 앞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농촌경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실정에 적합한 CB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 CB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충실한 창업계획이 요구된다. 창업계획의 수립에는 주민을 조직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비즈니스를 하는 취지와 사명감, 비전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주민간에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니즈에 연계한 독자성이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정부 보조사업을 계기로 보조사업의 범위 내의 비즈니스에 그치고 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문제를 공유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제를 CB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자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해야 한다. 현장에서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직거래, 교류에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농법을 비롯하여, 햇빛·물·바람 등 자연자원, 농촌경관, 전통문화 등을 발굴·개발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브랜드

드화하는 것이 ‘지역가치’를 극대화하는 수단이다.

넷째 지역리더의 육성이 과제이다. 비즈니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리더이다. 주민과 합의하여 CB를 창업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기획력, 정보력, 조직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에서 리더가 부재한 경우는 지역 밖에서 인재와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마을단위 영농조합이 기본적인 사업체

농촌형 CB의 바람직한 모델은 ‘마을단위 영농조합’이다. 이것은 주민합의에 의하여 생산을 조직화되, 주민이 출자하고 노동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생산·소비하는 사업체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 단순 노동이 필요한 채소나 화훼 등의 품목을 도입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품이나 특산물 개발하여, 직거래와 교류, 관광 등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여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의 공동과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성을 지향하여 지역가치를 고도화할 수 있다.



이달의 이슈 _ ②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 주체의 지역사업이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는 시장지향형 지역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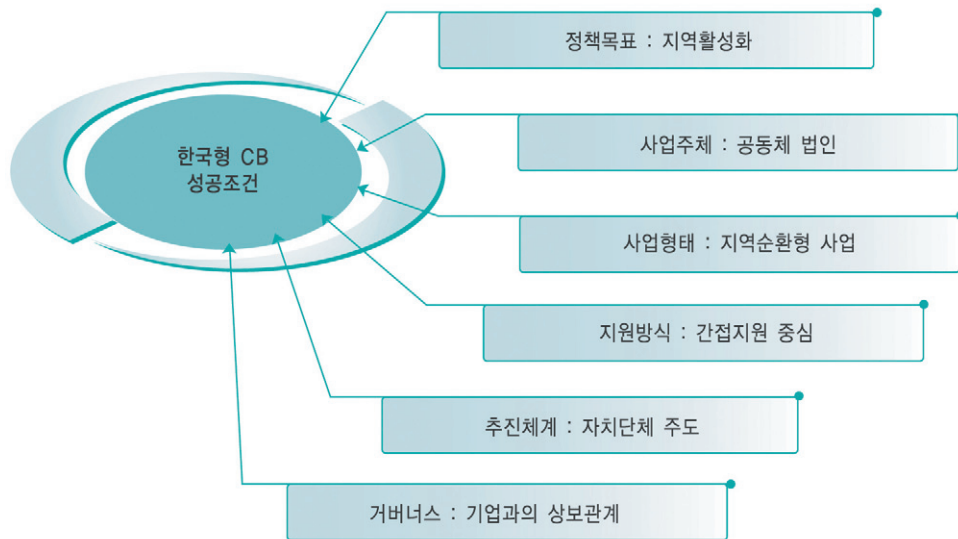
Business)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선진국에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NGO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출발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도입·육성해 왔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시책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실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확한 개념정립이 미흡하고 유사 정책 간에도 차별화가 부족한 채, 각 부처별로 제각기 부처의 미션에 맞추어 사업이 분산·중복 추진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자립기반도 미흡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초기단계의 상황에서 그간의 진행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적 제반 조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개념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적 수법을 차용하고 그 활동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서 사회성(공공성), 영리성(사업성), 지역성을 함께 가진 활동을 의미하지만, 실무에서는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마다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등이 제각기 분산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선도적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에서의 나뉠 활발한 활동에 비해 아직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추진주체별 인식이 서로 다른 채 정책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공모사업을 통한 무리한 정책확산으로 재정지원에 의존한 부실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역사적 전통,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각, 고용정책의 특성, 커뮤니티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한 특징적 모델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간의 정책경험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한국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의 바람직한 조건

첫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로부터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활성화'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내발적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을 지향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주체는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되 가급적 법인격을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법인격 취득의 장애 때문에 창업 및 사업 확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고에 기반을 둔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법인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밀착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연결되는 지역순환형 모델로 사업이 구성하여 자원, 인력, 판매 및 서비스 수요 등을 지역내에서 조달하고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사업비 직접지원방식의 정부보조를 점차 경영지원과 시장 확대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나친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일반 기업체에 비해 경영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지원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

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자생력을 배양해야 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규모나 능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지나친 개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자율성, 자립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타 민간부문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해쳐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지원은 제도적 지원 및 간접지원을 지향하되, 중앙정부는 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예산지원에 역할을 한정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기업으로부터 경영노하우, 인적 자원 등을 지원받고, 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사회적 공헌의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상생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저변에 뿌리내리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 모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정립하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통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하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정착할 수 있는 협력과 봉사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달의 이슈 _ ③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이동혁
(행정안전부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장)

I. 추진현황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퇴직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으로 명칭하고는 있으나 민법상의 법인, 상법상의 회사뿐만 아니라, 부녀회, 청년회 등 임의단체도 마을기업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마을기업 선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1차 심사(시군구, 민간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 광역자치단체에서 2차 심사 등 2단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적격 단체가 선정된 경우 약정 체결 전에 사업을 취소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정 배점은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재정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자립경영 및 지속적 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30점)로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여건과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다.

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장 2년간 (1+1)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2차년도 지원여부는 1차년도 기간 만료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으로, 인건비 지원은 최소화하되 마을기업 CEO·간사 등 초기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은 채용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

직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제도적 기반마련을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중간지원조직 육성, 마을기업 최종선정 등을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공모, 마을기업 1차 심사, 마을기업과 협약체결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도단위로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은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전반과 마을기업 리더 양성 및 마을기업 주민교육 등을 담당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I. 향후방향

경영, 회계, 세무, 노무, 마케팅, 법무 등 마을기업 경영관련 전문가 및 기관으로 구성된 ‘재능나눔pool’을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며, 지원이 종료되어 자립운영하는 마을기업에도 경영컨설팅을 상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착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마을기업의 성공사례, ‘우수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대표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의 추천을 받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마을기업’을 매해 30개 내외 선정, 사업비와 홍보,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강소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마을기업의 안정적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가칭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종합계획 수립,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중간지원조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공청회, 지자체 및 부처협회를 마을기업의 개념 및 지원내용의 구체화, 지자체의 역할 강화, 사회적 기업 등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및 관계 명확화 등을 통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Sun Rising City, Happy Seosan

대담 및 정리 :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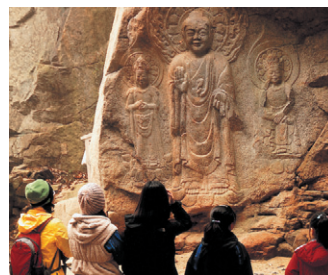
이완섭 서산시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성과관리과장을 역임하면서 국정시책합동평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서산시 부시장에 재직하면서도 특유의 친화력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서 10. 28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Q1 안녕하세요, 시장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서산시의 「독창적인 브랜드」 혹은 「고유한 문화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넉넉한 인심과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는 우리고장 서산시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의 서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는 인문지리나 자연적으로 서해안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며,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던 유적들이 해미면 휴암리, 대산읍 대로리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특별한 자연·문화유산이 참 많습니다. 백제시대에는 중국교류의 전초지로서 새로운 문화가 제일 먼저 형성되었는데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 등 백제의 불교문화를 이끌었고, 조선시대 천주교가 전래된 선두적 유입지로 해미 천주교성지가 위치하는 등 불교와 천주교의 종교 유적이 병립하여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문화로 일컬어지고 있는 내포문화의 중심지이며, 10,121ha의 전국 최대 간척지 천수만A·B지구가 있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뽕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생산되어 전국에 공급되며,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톤을 품고 있는 전국 최대 담수자원인 간월호, 부남호가 있고, 이곳에는 세계 최대 철새도래지가 형성되어 매년 300여종 5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곳으로 전국 생태관

광모델 10선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천수만과 가로림만이 있고, 전국 한우 인공수정 정액의 전량을 공급하고 있는 1,122ha의 전국 최대 한우목장인 한우개량사업소가 있으며, 또한 6쪽마늘, 생강, 6년근 인삼의 전국 최대 주산지가 바로 우리 서산시입니다.

Q2 취임하신 후,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하신 역점 시책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서산시는「5대 역점시책」추진을 통해「해가 지는 서산이 아닌, 해가 뜨는 서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품격 농·축·수산 도시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축·수산업이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FTA 협상 진행과 농자재 값 인상, 고령화 등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 농·축·수산업의 시설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명품화·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희망찬 교육·복지 도시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교육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미래를 밝히는 서산을 만들고, 노인과 여성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고, 시민건강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 유일의 국제항으로 깊은 수심과 중국 간 최단 거리(339km) 항로를 자랑하는 서산대산항이 있고, 한반도 서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공항과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앞으로 육·해·공 입체적인 교통·물류의 중심도시가 되어 더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출 것입니다.

넷째, 함께하는 문화·관광 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그 동안 온 시민이 염원하여 유치한 제64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내년 3월에 준공될 건축면적 6,928㎡의 서산문화복지센터에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서산관광 브랜드사업을 추진하여 서산 용현리 마에어래삼존상 등 관내 문화 유적지를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아라메길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다섯째, 살기 좋은 생태·환경 도시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랑이자 대표적 생태가치인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에 걸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산 시내의 중심 하천인 청



지천을 국·도비 등 300

억원을 투입하여 주변 환경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하천으로 개발중에 있는 해미천과 연계하여 생태하천 관광벨트화를 추진합니다. 쾌적한 하수처리를 위해 추진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내년에 완공시켜 도시의 품격을 높일 것이며 광역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



설 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에도 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 첫째, 우리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명확히 세우고 기존 추진 중이던 사업들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중앙정부 예산 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운영,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등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현안 과제는 서산대산항과 중국 간 국제패속선 취항과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서산대산항과 중국 간 국제패속선 취항을 위하여 중국 영성시와 국제객화선 항로 개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11월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서산대산항과 중국 간 국제패속선 정기항로 개설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지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중의 하나로 연간 국세가 3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고속도로가 없어서 입주 기업 60여개사가 물류비 부담 때문에 경쟁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기업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시세가 날로 확장되면서 공용버스터미널이 혼잡해 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노후시설 보수,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도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안으로 시 청사가 4개소로 분산되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지속 성장을 위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현 위치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에 걸 맞는 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를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서산에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몇 개 잠깐 소개하면 먼저,

교과서에 실린 백제시대 작품으로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각기 달라지는 백제인의 슬기가 놀라운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100여 개의 암자와 1천여 명의 승려가 기거했다는 사적 제316호 보원사지, 백제 의자왕 14년(654년)에 창건했다는 전통사찰 제38호 개심사,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 현동자 안견선생의 출생지에 건립된 안견기념관, 세종3년(1421)에 축성되어 충청병마절도사가 주둔했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 1866~1872년 사이 천주교 박해 때 1천여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하여 매년 수만 명의 순례자가 방문하고 있는 해미 순교성지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해발 677.6m의 가야산, 서해 절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 361.5m의 팔봉산, 드넓은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절경을 볼 수 있는 해발 352m의 도비산, 무학대사가 수도한 간월암과 서해 낙조가 아름다운 간월도, 대호방조제로 유명하고 포구를 따라 늘어선 식당가에서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는 삼길포항, 예쁜 곱돌 해변으로 유명하며 바다낚시, 솔밭, 저녁노을을 즐길 수 있는 별천포해수욕장, 계절의 별미 박속낙지탕과 망둥어 낚시로 유명한 중앙리 등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관광 우수 축제로 지정되어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산해미읍성축제와 서늘한 해양성 기후에서 자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팔봉산 감자 축제, 세계 최대 철새도래지로 지난 11월4일 오픈되어 사계절 세계 철새를 체험할 수 있는 서산버드랜드, 국보 제228호로 지정된「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들어 우리나라 천문과 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고려말 천문학자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 및 과학정신을 계승하고 국제천문연맹 소행성센터로부터 승인된 류방택별 헌정을 기념하고자 매년 5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우주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류방택 별축제 등 서산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축제에 초대합니다. 미식가들의 발길은 사로잡는 서산의 별미로 간월암에서 수도하던 무학대사가 태조에게 진상하였다는 전통 궁중음식 어리굴젓, 가을 서해안의 최고 별미 대하, 서해 청정갯벌에서 잡는 서산 전통음식 밀국낙지탕, 일본에서 으뜸으로 치는 서산 주요 수출품 꽃

게장,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었다는 참굴로 지은 굴밥, 서산 고유 토속음식으로 해산물과 갖은 양념으로 담은 겨울철 별미 게국지, 해수와 담수가 교차되는 수역에서 겨울철에 서식하는 희귀한 조개로 미식가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새조개 등이 있습니다. 서산6쪽마늘, 마늘주, 서산생강, 서산생강한과, 6년근 인삼, 간척지 쌀, 어리굴젓, 감자 등은 기름진 옥토와 해양성 기후에서 자라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서산의 웰빙식품입니다. 취향에 따라 코스별 테마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하면 역사체험코스 서산C로 진입하여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보원사지▶명종대왕태실▶개심사▶해미읍성▶정순왕후생가▶안견기념관▶당진으로 빠지는 코스가 있고, 생태·우주체험코스 서산C로 진입하여 간월도▶천수만 철새도래지 일대와 금년 11월에 개장한 서산버드랜드▶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코스, 신앙체험코스 해미IC로 진입하는 해미읍성▶천주교순교성지▶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코스, 서산C로 진입하는 개심사▶간월암▶부석사코스, 먹거리코스 해미IC로 진입하는 간월도▶창리포구▶서산동부관광재래시장▶서산C로 빠지는 코스, 서산C에서 진입하여 삼길포▶중왕리▶서산동부관광재래시장▶서산C로 나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특히,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유기방가옥에서 출발하여 고평저수지▶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보원사지▶용현계곡▶TV드라마 추노 촬영지▶용현계곡정상▶일락사▶황락저수지▶해미읍성으로 이어지는 총 20.1km의 아라메길을 추천하고 싶은데 소요시간은 약 6시간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무학대사가 수도한 간월암〉

자치단체 우수사례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비즈니스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이하 CB로 약칭함)란 지역사회, 공동체 등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즈니스원리를 도입한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CB과정을 거쳐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경우 지역사회내 자발적 마을만들기 전략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CB는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지역내 자원의 효과적 활용, 경제적 효과의 지역내 순환, 지방행정 서비스의 효율화 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유효한 대안이 되고 있다. 현재 CB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순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CB사례를 소개한다.

순천시의 CB 운영은 2008년 시작된 여성문화회관 CB사업단의 순천사랑빵 판매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첫째, 개인자립형 CB는 개인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서 예시한 순천사랑빵 판매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지역복지형 CB는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생활 복지사업이며, 순천 시니어공동체 판매장, 풍덕동 한솔밥 동네가게, 덕연동 콩나물 CB사업 등의 사례가 추진되고 있다.

셋째, 지역자원활용형 CB는 특산물 등 지역자원의 상품화 사업으로 고들빼기 마을사업, 멀티안테나 숭, 한방카페사업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문제해결형 CB는 도시·생활·자연환경 등 지역문제 개선사업으로서 에코그린평생지기 EM녹색가게, 덕연동 자전거 CB사업단 등의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

〈표 1〉 개인자립형 CB사례: 여성문화회관 CB사업단 순천사랑빵 판매사업

구분	주요내용
사업주체	- 순천시 여성문화봉사단
추진개요	- 사업장 설치 : '08. 2천만원 - 순천사랑빵 개발 상품화 - 운영방식 · 상품 제조 : 20명(8명 상시, 12명 주1회 봉사) · 상품 판매 : 회원 160명 협력 · 수익 배분 : 인건비 60%, 봉사기금 40%
주요성과	- 상시 고용 8명 / 창업1명, 취업4명 / 연매출 145백만원 - 제과제빵 관련 창업과 취업 지원, 공익적 자원봉사 활동
기대효과	- 자원봉사활동에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 - 우리 밀을 이용한 건강한 먹거리 확산 - 여성들의 창업과 취업의 트레이닝 공간

〈표 2〉 지역복지형 CB사례 : 풍덕동 한솔밥 동네가게

구분	주요내용
사업주체	- 풍덕동 한솔밥 cb사업단
추진개요	- 풍덕동 한솔밥공동체는 2009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직능 자원봉사단체 협의체를 구성, <한솔밥공동체>를 만들어 민간차원의 복지프로그램으로 “한솔밥 짝꿍이야기”사업으로 어려운 이웃과 회원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밀반찬 나눔사업을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양한 밀반찬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동네가게를 설립 운영 - 추진과정 · 2009 ~ 2010 순천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차원의 복지 서비스 “한솔밥 짝꿍이야기” 추진 · 2010 순천시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으로 상품개발 · 2011 마을기업 사업으로 공모하여 사업비 5천만원 지원(순천전통시장 아랫장 내 장옥2동 임대, “한솔밥 동네가게” 리모델링 및 개소)
주요성과	- 회원 11명 일자리 (시간제) / 2011. 8.26 개소
기대효과	- 체험 사업부와 상품판매, 음식사업부로 구분 장기 발전계획 - 소비자-생산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CB활성화 유도 - 순천시 CB,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견학 코스로 활용

〈표 3〉 지역자원활용형 CB사례 : 고들빼기마을사업

구분	주요내용
사업주체	- 순천시 별량면 개령이영농조합법인
추진개요	- 순천의 풍부한 친환경 농산물 활용 - 마을 부녀회에서 체험밥상 메뉴 개발, 교육훈련 장소로 운영 - 고들빼기를 이용한 김치, 술 등 개발
주요성과	- 10명 고용(마을주민 김치제조 및 체험운영 인력)
기대효과	- 로컬푸드를 이용한 CB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운영 - 순천의 식재료만으로 특화된 시골밥상 상품화

〈표 4〉 지역문제해결형 CB사례 : 에코그린평생지기 EM녹색가게

구분	주요내용
사업주체	- 에코그린평생지기
추진개요	- 음식물 쓰레기 분해기능이 있는 유용한 미생물에 대한 학습과 벤치마킹을 통해 EM사업을 시작 -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7백만원 지원 - 구도심의 빈 점포를 이용 ‘녹색실버가게’를 창업 - EM 원액에 주변식당가의 쌀뜨물을 섞어 활성액을 만들어 상품화 - 2010년 전국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 공모 4천만원 지원
주요성과	- 구도심 빈건물 이용 상시 점포 운영/ 일자리 (상시 1, 주부10)
기대효과	- 주민들의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비즈니스와 연결 - 주부, 고령자 등에 주요계층에 적합한 일거리 창출 - 민과 관의 적극적 협력

순천시의 CB 운영은 CB의 공감대 확산, CB의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CB 매니저의 양성 등 여러 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자원봉사 영역의 확대,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대, 지역공동체 유대관계의 강화 등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비즈니스와 연결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도시통계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추진실적과 통계

전대욱,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사회적기업은 기업활동이 사회적 목적(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목적의 달성과 지속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적 목적(경제적 이익의 추구)이라는 기업활동의 원 취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갖는 포괄성은 물론, 마을기업과 같이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인 조직이나 활동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종종 마을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포괄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재정 투자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자립형 일자리사업이 대세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과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발달해 왔고, 2010년 6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로 관련 업무를 이관시킨 이후 동년 8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도입과 함께 2011년부터 각 지역별로 고용노동부의 경상보조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2010년말 현재 490개 인증 사회적기업의 창출 일자리수는 13,436개, 매출액은 3,674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과 달리 자선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거시적인 사회적 목적보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미시적이나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즉 현대적 자본주의 구조는 수요자(소비자)와 공급자(생산자)가 분리되어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계층간에 고르게 축적되지 못하고 이는 내발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통합시켜 창출된 부가가치를 순환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사회자본을 축적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즉 일자리창출 전략에 있어서 공공-민간을 혼합한 제3섹터 전략으로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푸쉬(push)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마을기업은 지역경제 “순환”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풀(pull)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차별적이다.

우리나라의 마을기업 정책은 2009년 12월 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후의 안정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추진이 보고되었고,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Post-희망근로로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추진되었다. 2010년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서 마을기업은 1시군구 1개 사업(총 232개)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총 455개 자립형 지역공동체 지원단체 중 184개를 선정(총 매출액 208억원)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마을기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며 육성법의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500개 마을기업의 육성을 당해연도 목표치로 제시하였으며, 2013년까지 총 1천개의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2011년 6월말 현재 육성된 539개 마을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2,975개, 매출액은 73억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마을기업은 559개까지 증가하였다. 상기와 같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각기 다른 두 중앙부처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2011년 6월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이러한 부처간 독립적 추진에 대한 변화를 야기시킨다. 동 회의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 중앙부처 및 지역단위 확산노력의 일원화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전 중앙부처가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위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 등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시행 등을 논의하였다. 2011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을 모두 합한 수치는 2,120개에 이르며 이러한 사회적 경제섹터의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는 2만개 이상, 매출액은 총 5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0년	마을기업 지원현황(개소)	184	9	15	6	8	5	6	5	25
	인증 사회적기업 (개소)	490	107	25	23	34	15	11	16	84
	창출된 일자리수(개)	13,436	3,230	881	414	913	491	406	340	2,330
	매출액(백만원)	367,352	102,896	13,456	6,640	21,621	7,408	6,830	8,346	111,725
'11년	마을기업 지원목표(개소)	500	84	42	32	23	18	16	9	90
'11년 6월말	인증 사회적기업 (개소)	532	118	28	28	34	20	11	18	94
	예비 사회적기업 (개소)	1,049	429	76	23	35	37	22	7	131
	마을기업 지원현황(개소)	539	66	29	32	27	20	17	10	96
	창출된 일자리수(개)	2,975	320	171	129	78	75	96	29	955
	매출액(백만원)	7,322	267	211	211	97	411	681	90	627
	사회적기업 전환희망(%)	63.3%	66.7%	93.1%	84.4%	92.6%	40.0%	76.5%	90.0%	43.8%
'11년 9월말	마을기업 지원현황(개소)	559	72	45	32	26	20	17	10	95

		전국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10년	마을기업 지원현황(개소)	184	13	7	11	14	19	17	20	4
	인증 사회적기업 (개소)	490	32	24	16	23	26	23	20	11
	창출된 일자리수(개)	13,436	710	606	296	881	637	516	557	228
	매출액(백만원)	367,352	26,344	10,307	4,955	15,376	11,397	13,723	12,132	3,195
'11년	마을기업 지원목표(개소)	500	20	19	22	32	31	30	28	4
'11년 6월말	인증 사회적기업 (개소)	532	33	24	17	24	27	25	20	11
	예비 사회적기업 (개소)	1,049	26	25	36	48	26	65	48	15
	마을기업 지원현황(개소)	539	44	13	32	33	37	34	39	10
	창출된 일자리수(개)	2,975	155	80	145	184	205	128	217	8
	매출액(백만원)	7,322	589	463	627	269	726	1,598	410	45
	사회적기업 전환희망(%)	63.3%	52.3%	100%	87.5%	54.5%	27.0%	44.1%	74.4%	100%
'11년 9월말	마을기업 지원현황(개소)	559	44	13	32	34	39	33	37	10

행정안전부에서도 이후 마을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전 부처적인 사회적기업의 확산노력을 추진하였다. 마을기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위하여 「마을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수요조사 및 컨설팅」이 2011년 하반기에 시행되었으며, 2011년 연말까지 시도별로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재능나눔플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전환육성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전환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2013년까지 마을기업 300개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목표로 2012년도 마을기업 선정시 사회적기업화 가능기업을 30% 범위(400개 마을기업 육성목표 중 120개) 내에서 우선 선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추후 행안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추후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시 부처추천 대상이 된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된 수요조사에서 전국적으로 63.3%의 마을기업인 341개소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200개의 시도별 시범추진 사업체를 선정하여 최소 100개 이상의 행정안전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예산지원이 종료되는 2010년 선정된 마을기업 184개소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전환을 희망하는 92개 기업(56.1%) 중 9개(5.5%)를 전환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인건비 등 국비지원액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상당수의 마을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꺼려하거나 혹은 전환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취약계층 등 유급근로자 고용이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수익창출 등의 사회적기업 요건은 기존의 마을기업에서 익숙한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인 등 회사형태의 조직요건이나 특히 이윤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등은 기존의 구성원들간 이해관계나 기존 마을기업 구조에 대한 재편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희망수치와 실제 전환수치간의 괴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각 중앙부처의 예비사회적기업, 행안부의 마을기업 등 제3섹터의 일자리 정책들은 추후 지속적으로 연계되며 동시에 차별화될 것이다. 또한 재정일자리 사업들이 축소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분야 일자리 정책간의 연계와 전환 등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관련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인증 5년차를 경험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이 진흥원의 설립을 계기로 관련자료 및 지식을 축적하면서 최근 국가 및 지역 재정투입의 사회적 투자수익률 등 상세한 분석자료가 제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정 2년차를 맞이하는 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선정 3년차를 맞이하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마을기업은 상대적으로 제시된 실적과 통계자료 등이 아직은 제한적이나 추후 이러한 통계자료에 대한 축적과 관심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동향(11월)

하동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련 움직임

- 강화군은 인천시와의 접근성 부족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함(11.15). 따라서 군내에는 김포시와 생활권이 밀접한 지역이므로 상호 통합하여 경기도로 편입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임(서울신문 11월16일)
- 경남 김해시가 부산 강서구와의 통합건의서를 경남도에 제출함(11.15). 김해시는 두 지역이 문화와 생활권이 동일한 만큼 통합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음. 강서구 역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임(서울신문 11월 16일)
- 경기 안양·군포·의왕시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주민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군포·의왕추진위원회는 11월 18일부터 통합 건의 주민서명을 받고 있으며, 안양추진위도 창립(11.21)되어 이달 말까지 2만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안양시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임. 반면 현재 군포시와 의왕시는 통합추진지원단을 가동하고 있는 안양시와는 달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임(서울신문 11월 24일)

▶ 취업특성화 학과 운영으로 지역인재의 양성(서울신문 11월 29일)

-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대학·기업이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특성화 학과가 운영되기 시작. 전북도는 도내 4개 대학과 5대 기업 등과 함께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취업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음(11.28)
- 취업연계 특성화 과정은 주관 대학이 도내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졸업생 취업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학과를 운영하는 제도로, 주관 대학은 전북대, 원광대 등이며 참여 업체는 현대중공업 등 5개 기업임
- 해당 대학들은 내년 1학기부터 학사(3개)와 석사(2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83명의 학생들이 수강할 예정임.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북대는 인쇄전자(석사)와 탄소(학사), 전주대는 탄소(석사), 원광대는 LED(학사) 등이며 도가 전체 경비의 70%를 지원하고 참여 대학과 41개 기업이 나머지 30%를 부담함
- 이들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협약을 맺은 기업에 취업하며, 취업한 졸업생은 최소 2년 이상 사업 참여 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한 신생아수의 증가(서울신문 11월 22일)

-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온 광주 동구에 신생아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까지 감소 경향을 보였던 광주 동구의 신생아 수가 지난해 11.6%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1.7% 늘어난 643명으로 집계되었고 연말까지 목표치인 8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11.21)
- 동구가 추진해 온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과 산모를 위한 특별 혜택 등이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동구는 아이를 3명 이상 낳는 가정에는 1000만원의 출산 축하금, 3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 무료 스케일링, 관내 보육·결혼 예식·공인중개·미용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이용 요금의 할인(10~30%)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관내 50여개의 빈집과 빈방을 알선해주는 '희망동지 보금자리 알선 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각종 지방세 고지서, 민원실 민원대기표 등에 출산 장려 문구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도 전개하고 있음
- 앞으로도 산모·유아용품 무료 대여 코너를 운영하고 난임 부부 치료와 산모 한방 치료를 지원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여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막겠다는 각오임.

연구원동정



12월 연구원 소식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 일시: 2011. 11. 17(목) 13:30~17:40
- 장소: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 주제: 한·일 지방자치단체 재난방치대책 연구
-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 국립방재연구원 · 국회이인기행정안전위원장 · 내일신문
- 후원: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한국방재협회, 한국방재학회, 일본총무성, 주한일본대사관, 일본국제교류기금



개회사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기조강연 (가타야마 요시히로 일본 前 총무대신)



발표자 (김영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울진군 MOU 체결

- 일시: 2011. 11. 22(화)
- 장소: 울진군청 대회의실
- 내용: 울진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2011년도 종무식

- 일시: 2011. 12. 30(금) 11:00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용: 유공직원표창(장관, 원장), 우수연구과제 시상, 원장님 송년사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성과가 지방정책 수립과 적용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 의정연수센터

운영방법

- 대 상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공무원
- 방문교육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대상자와 교육장소, 시기를 정하고 지방자치 · 의정연수센터 교수진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교육과정

- 방문교육

개 요 기간	세 부 내 용 1일~2일		
교육 과정	지방재정력 분야	지방재정관리 혁신	고령화사회와 지방재정 운영전략
			성과중심 예산제도 운용 및 활용방안
			지방재정 위기와 대응방안
			광특회계 운영과 지방의 대응
	지방경쟁력 분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공공감사체계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
			컴퓨터활용 감사기법
			감사계획 수립방법 및 감사기법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성과관리 개요와 자체평가의 이해
			성과평가 지표개발의 원칙 및 방법
			지표개발 실습
			지표별 가중치 설정과 평가기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제고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이해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지역경제발전 분야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운영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설립과 육성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운영과 지속방안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지역발전의 현재 및 미래환경의 이해	
		광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지역개발 자원	
		창조 지역발전의 이해, 연계 협력 및 광역화	
		미래 특화발전 전략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1일과정 : 1인당 10만원 /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 교육이수 실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7호)에 따라 '상시학습 수료'로 인정



알림아당



에너지절약,
내복입기로 시작하세요!

공공기관 『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 』

- 에너지절약, 내복입기로 시작합시다! -

정부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을 위해 「범국민 내복입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추운 겨울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내복 입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소식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메일 : yjtak@krila.re.kr

– 전 화 : 02-3488-7361